

2015년 가을 학기  
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

전체 주제:  
하나님의 건축의 일

메시지 6  
상호 거처

성경: 요 1:14, 14:1-6, 20, 23, 15:4

- I. 요한복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와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 안으로 오시고 사람을 그분 자신 안으로 이끄셨는지를 계시한다 — 요 1:14, 14:6, 20.
  - A. 그리스도께서 육체되심을 통하여 오신 것은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이끄신 것이었다 — 요 1:14.
  - B.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가신 것은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이끄시기 위한 것이었다 — 요 14:2-3, 6, 20.
- II.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에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하여 가시고 그리스도께서 부활 안에서 오신 것은 믿는 이들을 아버지 안으로 이끄시기 위한 것임을 본다.
  - A. 주 예수님은 어떤 장소가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, 곧 아버지 자신께로 가셨다 — 요 14:12, 28.
  - B. 주님은 아버지께로 가셨으며 그분의 의도는 그분의 제자들을 아버지의 신성한 인격 안으로 이끄시는 것이었다 — 요 14:5-6, 12, 20.
    - 1. 주님은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이끄시기 위해 육체되심에 의해 아버지로부터 오셨고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이끄시기 위해 아버지께로 가셨다 — 요 1:14, 14:20.
    - 2. 그분이 가신 길은 죽음과 부활에 의한 것이었고 그분이 가신 목적은 사람을 아버지 안으로 이끄시기 위한 것이었다 — 요 14:6.
  - C. 2절에서 ‘내가 가면’이라는 말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거처를 건축하시기 위해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이끄시려고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실 것임을 의미한다. 이것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언급된 교회의 건축이다.
- III. 요한복음 14장 2절에 있는 “나의 아버지 집”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, 곧 그리스도의 몸이다.
  - A. 2장 16절에서 ‘나의 아버지 집’은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인 성전을 가리킨다. 성전은 예수님의 몸의 예표 혹은 모형이며 그 몸은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확대되었다 — 요 2:19-22.
  - B. 14장 2절에 있는 ‘나의 아버지 집’은 천당이 아니라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, 곧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가리킨다.
  - C. 서신서에서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계시가 완전히 발전된다 — 딤후전 3:15-16, 벵전 2:5, 엡 2:21-22.
  - D. 요한복음과 신약 전체에서 아버지의 집은 그리스도의 몸, 즉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인 교회이다 — 엡 1:22-23, 2:21-22, 딤후전 3:15-16.

**IV. “나의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습니다” — 요 14:2.**

- A. 많은 거처는 하나님의 성전인 그리스도의 몸의 많은 지체들이다 — 롬 12:5, 고전 3:16-17.
- B.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건축물, 곧 아버지의 집 안에 있는 거처들이다. 이 건축물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거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다 — 엡 1:22-23, 2:21-22, 5:30, 고전 12:27.

**V. “내가 가서 여러분을 위하여 한 곳을 예비하겠습니다.”는 주님께서 한 곳을 예비하시고, 구속을 성취하시고, 길을 여시어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지를 마련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— 요 14:2-3, 6.**

- A. 죽음과 부활에 의해 주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이끌릴 수 있도록 길을 내시고 한 곳을 예비하셨다 — 요 14:20.
- B. 죽음과 부활에 의해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입지를 예비하셨다 — 요 14:2-3, 6.
- C. 하나님 안에 입지를 갖는 것이 확대되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입지를 갖는 것이 되었다 — 롬 12:4-5, 엡 5:30, 고전 12:27.
- D.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로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안에 한 장소와 몸 안에 한 장소를 가지고 있으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 예비된 그 곳 안에서 살아야 한다 — 요 14:2-3, 20, 고전 12:27.

**VI. “내 안에 거하십시오. 그러면 나도 여러분 안에 거하겠습니다.” — 요 15:4.**

- A. 그리스도의 오심과 가심의 결과는 하나님과 사람의 상호 거처이다.
  - 1. 그리스도는 그분의 육체되심 안에서의 오심에 의해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이끄셨고 죽음과 부활을 통한 그분의 가심에 의해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이끄셨다 — 요 1:14, 14:20.
  - 2. 이제 하나님과 사람, 사람과 하나님은 상호 거처가 되었다.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.
- B. 그리스도 안에서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. 상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처가 된다.

**VII. “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지킬 것입니다.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,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서로 거처를 정할 것입니다.” — 요 14:23.**

- A. 여기서 우리는 상호 거처가 아버지와 아들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방문하심에 의해 건축된다는 것을 본다.
  - 1. 아버지와 아들께서 우리를 방문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서 건축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이다.
  - 2. 결국, 우리와 그분, 그분과 우리는 상호 거처가 된다 — 요 15:4.
- B. 삼일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과 함께 그분의 거처를 정하시는 것은 그분의 거처를 건축하시기 위한 것이다 — 엡 2:21-22.
  - 1. 오늘날 하나님의 거처의 건축은 전적으로 요한복음 14 장 23 절에서 설명된 이러한 체험에 달려 있다.
  - 2. 이런 방식으로 주님은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건축의 일을 하신다 — 마 16:18.